

北核실험 파장

“美 무력제재 가능성 낮다”...주가↑ 환율↓

‘북핵 쇼크’ 하루만에 주식시장이 반등에 성공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락세로 돌아서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코스피지수는 3.04포인트 상승 출발한 뒤 외국인들의 선·현물 동시 순매수에 힘입어 전일대비 8.97포인트(0.68%) 오른 1,328.37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급등세를 나타내며 15.60포인트(2.89%) 상승한 554.70으로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우려감이 완화되며 6거래일만에 하락반전에 성공. 전일보다 달러당 4.40원 떨어진 959.50원을 기록했다.

금융시장 안정은 뉴욕증시가 오름세를 보인데다 국제사회의 대응이 군사적 대응보다는 일단 외교적 해결 쪽

“경제 제재만 있을 듯”... 코스피 마지노선 1,250선 추가 핵실험 우려감 상존... 신중한 투자 필요

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부각되며 따른 것이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국면=증시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실험 선언으로 주식시장의 투자위험이 높아졌지만 그만큼 수익기회도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분석에는 미국 등 주변국들이 북한 핵 문제를 군사대응으로 풀기보다는 외교적 해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 기저에 깔려 있다.

현대증권은 리포트를 통해 북한의 핵 실험 발표로 주식시장의 투자위험이 높아졌으나 양호한 경제 판단멘탈을 고려할 때 그만큼 수익기회도 커지고 있는 국면이라며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 기술분석팀장은 “북한의 핵 실험 실시로 유엔을 통한 경제 제재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즉각적인 군사적 충돌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스피지수 지지선은 1,250선 예측=삼성증권도 미국의 대북 무력제재는 중국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으며 유엔의 제재결의를 통한 압박이라는 현실적인 시나리오하에서 코스피지수의 마지노선은 1,250선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삼성증권 김태현 광주지점장은 “경제 외국인 충격은 단기간에 회복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코스피지수의 경우 1,250선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

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외국계 증권사인 메릴린치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이후 예상되는 미국과 일본 등의 경제제재 조치가 이미 한국 시장에 반영돼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추가 약재 우려, 신중하게 접근해야=하지만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돌발 약재가 재차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대증권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예상지 못한 후속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분할 매수가 적절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씨티그룹 역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은 ‘벼랑 끝 전술’의 종말을 의미하며 한국과 중국에겐 새로운 정치적 불확실성 시대의 개막을 의미한다며 보수적인 접근을 권고했다.

/장필수기자 bung@kwangju.co.kr

■ 금융시장 안정 기미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 재경부 분석

최근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조정 움직임 등을 감안할 때 북한 핵실험 사태가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정부 내에서 제기됐다.

재정경제부는 10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번 핵실험은 미국과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 등 향후 사태 진전 여하에 따라서 파급 효과의 폭과 깊이가 보다 심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최근 외국인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조정 움직임 등을 감안하면 자금 이탈 가능성도 상존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카메라폰 1천만 화소폰 시대

삼성전자 세계 첫 출시...위성DMB 탑재

삼성전자는 10일 세계 최초로 1천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한 ‘1천만화소폰(SCH-B600)’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지난 3월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정보통신전시장 ‘세빗(CeBIT)’에서 처음 선보여 세계 휴대전화 업계를 놀라게 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세계 최초로 700만화소폰을 출시한 데 이어 약 1년여 만에 두께를 6mm, 무게를 10g 이상 줄이고 1천만화소 카메라에 위성DMB까지 탑재한 휴대전화를 상용화해 카메라폰 선두업체로서의 기술력을 과시했다.

총화소 1천36만, 유효화소 1천13만에 광학 3배줌, 디지털 5배줌이 장착된 고급 디지털 카메라 수준의 이 제품은 야간 촬영시 자동으로 초점 거리를 맞출 수 있게 하는 ‘AF 보조광’을 지원하며 화이트 밸런스, 자동/수동초점(AF/MF) 선택, 16가지 장면촬영 등 다양한 촬영 모드를 제공한다.

특히 사진을 원하는 대로 잘라낼 수 있는 트리밍을 지원해 배경 화면을 꾸미거나 멀티미디어 메시지(MMS)를 보내기에 편리하며 촬영한 사진을 컴퓨터와 연결없이 다른 휴대전화로 전송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다. 가격은 90만원대. /연합뉴스

한국 ‘백만장자’ 8만 6,700명

주거지·소비재 제외...3,000만달러 이상 자산가 375명

메릴린치 아·태 부자 보고서

우리나라에서 주거지와 소비재를 제외하고 100만달러 이상의 금융 자산을 보유한 ‘백만장자’가 8만6천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약 375명은 3천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융자산을 가진 초고액 자산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메릴린치가 컨설팅 회사인 캡제미니(capgemini)와 공동으로 발간한 ‘아시아태평양 연례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고액자산보유자(HNWI: 주거지와 소비재를 제외하고 최소 100만달러 이상의 금융 자산을 보유한 사람)는 2005년말 현재 8만6천700여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총 2천300억달러에 달했다. 부자 보고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8대 주요 시장(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한국, 대만)을 대상으로 작성됐다. 한국의 경우 HNWI 숫자가 전년

대비 21.3% 늘어나 인도(19.3%), 인도네시아(14.7%), 홍콩(14.4%), 싱가포르(13.4%) 등 다른 아시아태평양 국가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한국의 HNWI는 전체 성인인구의 0.22%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계 평균(0.22%)과 같았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균치인 0.10%를 크게 웃돌았다.

또 성별로는 남성 비율이 87%에 달해 부의 남성 편중 현상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가운데 가장 심했다. 연령별로는 31~50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내 16~30세의 젊은 부자가 많은 중국과 인도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한국 HNWI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이었다. 한국 HNWI의 자산은 주로 현금·예금(35%)과 채권(25%)으로 이뤄져 대표적인 보수국가로 손꼽히는 일본(현금·예금 27%, 채권 16%)보다 더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우리쌀로 만든 빵 맛보세요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순)와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전남도 회장 유영란) 회원들이 10일 신히밭데이를 맞아 농협 동광주지점 현관에서 시민들에게 신히빵을 나눠주며 우리 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다. /위리장기자 jrwi@kwangju.co.kr

‘주5일제’ 일자리 창출 못했다

대한상의 500곳 조사...기업경영 성과엔 도움

2004년부터 시행된 주 5일(주 40시간) 근무제가 주요 도입업체 중 하나인 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에는 도움을 주었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家權)가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후 채용규모가 증가한 기업은 19.0%에 불과했다.

채용규모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들(95개사) 중 35.8%는 그 이유로 ‘근로시간의 합리적 분배(job sharing)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꼽았고, ‘향후 투자계획 확대’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4.7%에 달했다.

이 외에 ‘매출액 증가’ 때문이라는 응답도 25.3%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당초 기대했던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직접적 고용창출 효과 보다는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풀이됐다.

주 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와 관련해서는 응답기업의 57.8%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제조업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38.7%였고 비제조업은 긍정 평가가 69.0%였다. 지난해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 주40시간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가 긍정

적이라는 응답이 41.6%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새 긍정적 응답비중이 16.2%포인트 상승했다.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5.6%,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46.4%, ‘임금지원 등을 통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 33.5%였다.

주 40시간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인건비 경감을 위한 지원방식으로는 ‘4대 보험료 인하를 통한 인건비 부담 경감’을 꼽은 응답이 38.8%였고 그 다음으로는 ‘생산성 범위 내 임금인상을 위해 정부지도 강화’(33.0%), ‘신규채용에 대한 특별 지원금 지급’(20.6%) 등의 순이었다.

/이종태기자 jtee@kwangju.co.kr

이건희 회장 ‘창조 경영’ 순례 마무리

귀국이후 행보 재계 관심 집중



미국을 거쳐 유럽, 중동으로 이어진 이진희 삼성그룹 회장의 ‘창조경영 순례’가 거의 한달만에 마무리됨에 따라 그의 귀국 이후 행보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달 14일 미국 코리아사사이티가 수여하는 ‘벤틀리 트라스트(賞)’를 받기 위해 출국한 후 경영진과 함께 현지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사업 파트너와 만난 자리를 통해 ‘창조경영’을 설교해 왔다.

지금까지 공개된 이 회장의 방문지는 지난달 19일 미국 뉴욕 맨해튼 타임워너센터, 같은달 30일 영국 프록시 프리미어리그 구단 첼시의 런던 홈구장, 지난 8일 두바이의 세계 최고층 빌딩 ‘버즈 두바이’ 공사 현장 등이다.

이 회장은 가는 곳마다 동행한 삼성 경영진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세계 일류가 되기 위해서는 남다른 발상과 최고의 인재에 기반한 ‘창조적 경영’이 필수적”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 회장은 향후 이번 해외순방을 통해 제시한 ‘창조경영’의 화두를 현실화하기 위한 속고의 시간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국내가 될지, 아니면 예전에 종종 그랬던 해외로 갈지 여부 등 해의가 될 지에 대해 삼성 관계자들은 극도로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 자신이 “추석을 전후해 귀국할 것”이라고 밝힌만큼 이번 순례, 늦어도 이달 안에 귀국하리라는 것이 그룹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며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에도 이 같은 일정이 사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귀국 후 주요 계열사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인수중사업 진출전략, 인재확보 현황 등을 점검하며 ‘창조경영’의 메시지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인텔리서비스	LG텔레콤 고객센터 정규직 상담사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0/11	062-601-7203
스텔스	SK텔레콤 미남 고객 상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1	062-351-6050
코이리서체(광주지사)	설문관리 및 에디팅 출결업무 담당사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3	062-352-7375
선광엔지니어링	계측관리 및 보고서작성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10/13	062-232-5857
경영기획관리센터	고객상담 및 홍보와 관리 여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4	062-222-1988
트라이브랜즈	거래처관리 및 영업	대졸/경력무관	1600~1800	10/14	063-833-5051
경일산업개발	보안요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000~1200	10/15	02-2163-6450
한국공영엔지니어링	정규직 비파괴검사 직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0/16	062-369-0790
이프로	웹디자인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자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10/16	062-512-8112
L.S.T	일반사무직	대졸/경력1년	1800~2000	10/17	062-650-6545
위터웍스 유진	국내 건설업체 영업 및 관리 업무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0/17	02-2163-6450
대우캐피탈 광주전남지사	2006년 분야별 정규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8	011-649-4009
LGO이노텍	LGO이노텍 사무지원 계약직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0/18	062-950-0458
메니네스트푸드시스템	패밀리레스토랑 ‘일래스카’ 광주월드컵점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8	031-740-9977

(광주지프코리아 512-6210 제공)

공익사업 수용 토지, 땅으로 보상

건교부 이르면 내년부터 ‘환지방식’ 도입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땅 주인에게 개발되는 땅의 일부를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환지방식’이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에 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행정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과도한 현금보상과 이에 따른 주변땅값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환지방식의 근거와 방식 등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에 법률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특별법 등 개별법률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이를 적용하려면 해당 법률의 개정도 필요해 실제 시행시기는 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보상법에 환지방식방식의 규정이 마련되면 토지소유자는 희망에 따라 보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주택·상가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아파트 15년 지나면 리모델링 가능

내년부터 전용면적 최대 30% 증축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진다.

또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상가 주인도 조합원으로 간주돼 집주인들과 공동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중”이라며 “이달말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증축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증축을 수반한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이어서 공동주택의 난방 등 급수설비와 위생설비의 수선 주기(15년)와 맞지 않아 경제성이 떨어지고 효과적인 공동주택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써 앞으로 지어진 지 15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대 30%까지 전용면적을 늘릴 수 있게 돼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여직원 생리수당 지급요구 확산

씨티은행 지급에 보험·증권사 노조 소송제기

최근 한국씨티은행이 미지급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한 데 이어 보험사와 증권사 노조들도 수당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생리수당 지급요구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은행권 노조가 대거 소속된 금융산업노동조합도 사측과 진행중인 공동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미지급 생리수당 지급 문제를 협의하고 있어 한국씨티은행 수당지급이 은행권 전체로 이어질 지도 주목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소속 7개 증권사 여성직원 1천400여명은 다음주 서울중앙지법에 미지급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에는 한국은행과 우리투자증권, LIG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녹십자생명 등 10개 사업장 여성직원 3천708명이 서울중앙지법에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